

3/26(토) 삼하 1-4장 마지막 관문

사울이 전사한 이후에도 통일왕국이 되는 데는 8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을 기반삼아 7년 6개월 동안 <유다 왕>으로서 다스리고(삼하2:11), 이후에 비로소 <온 이스라엘> 왕으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5:4-5).

우리는 사울의 후계자로 당연히 다윗을 떠올리지만, 남아있는 사울의 아들과 군대, 북쪽 지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북쪽은 사울이 죽은 지 5년이 지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2:8-11). 이스보셋은 정통성을 담당할 뿐 실세는 군사력을 지닌 아브넬로 보입니다(3:7-11). 결국 이스보셋 왕은 2년을 다스리고 아브넬에게 배신당합니다(2:10, 3:12). 이후 자신의 군 지휘관들에 의해 암살됩니다(4:5-6).

사울이 전사했을 때 세상의 모든 이목이 다윗을 주시했습니다.

아말렉 소년이 전사한 사울의 왕관을 들고 다윗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1:10).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아브넬의 죽음,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 아군도 적군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현실적으로 그들의 죽음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치적인 측면을 넘어 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살핍니다. 사울과 요나단 뿐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북쪽의 실세, 군사령관 아브넬의 죽음이 자칫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시하며 신중하고 민감하게 대처하던 다윗은 인위적인 모든 움직임을 통탄하며 경계합니다(1:14, 3:28-29, 4:10-12).

사람들은 <이제 너의 때가 왔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며 순종합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흡족해 하였습니다(3:36).

다윗은 긴 세월을 지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순종합니까?

- ① <이제 나의 때가 왔다>고 여기며 경솔히 행동하지 않습니까?
- ② 눈앞의 것만 바라봅니까, 깊이, 멀리까지 내다봅니까?